10.15686/fkl.2022..55.111 OPEN ACCESS

냉전체제에 맞서는 월남 여성작가의 글쓰기

: 박순녀, 이정호를 중심으로

김은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목차

1 한국여성문학사 쓰기와 월남 여성작가들
2 불온한 자유를 꿈꾸는 여성의 자기형성기: 박순녀
3 '흥남철수'신화의 전복: 이정호
4 결론을 대신하여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50864).

국문초록

월남 여성작가인 박순녀와 이정호는 1960년대 문단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냈지만 그간 한국문학사에서 군소 작가(群小作家)라는 옹색한 위치에 머물러 왔다. 1990년대 이후 분단 극복을 위한 문학사 서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월남 여성작가는 분단체제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글쓰기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한국여성문학사는 기존의 한국문학사에 '타자'들의 문학사를 단순히 첨가하는 복수(複數)의 문학사가 아니라 자국문학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문학사여야 한다고 할 때, 월남 여성작가들의 글쓰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월남 여성작가들은 전쟁을 체험한 당사자로 전쟁을 평화를 위한 성전으로 미화하며 사실상 분단을 지향하고 국민을 군사주의적으로 조직해 온 전체주의 국가에 맞설 수 있는 윤리적 기억의 소유자들이다. 냉전 체제를 지탱하는 군사주의 문화는 여성의 권리와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전쟁의 부조리를 심문하는 여성 당사자들의 기억 서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냉전주의에 대한 비판은 성장지상주의, 전후 강고해진 분단 이데올로기, 초남성적 국가주의 속에서 인권이 짓눌리고 사인화(私人化)된 존재로 가정 영역에 고립된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문핵심어: 월남작가, 여성작가, 여성문학, 196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 분단체제, 군사주의, 6.25 전쟁, '흥남철수'등

1 한국 여성문학사 쓰기와 월남 여성작가들

1948년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 후 냉전체제가 형성되어 38선을 경계로 한 탈주/편입이 이루어지면서 식민지기 문학 장은 해체되고 남한문학사가 새롭게 출발했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새롭게 형성된 한국문학 장에서 월남(越南)작가는 전후 문단의 여러 그룹들 중에서도 다소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전쟁의 부조리를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월남작가들의 삶과 문학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데 따른 슬픔/원한, 상실을 애도할 수 없는 우울증적 감정/정동, 정신적 무국적성에서 비롯

되는 이방인 의식 등이 관통하고 있다. 월남작가는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분단체제를 비판하는 평화 주체로서의 저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월남작가는 남한체제와 자유주의 이념의 선전자로 위치지워져 온 측면이 크다. 월남작가의 월경(越境) 행위는 남한의 기득권들에 의해 빈번히 자유를 향한 탈출이라는 해석에 갇혀 정치화되어 왔다.[1] 월남작가들은 남한의 반공주의와 검열 문화 속에서 온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도 했지만, 월남민이라는 정체성이 왜곡되게 기술되고 이들의 작품 역시 편향된 해석에 갇힘으로써 문학사의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2]

월남작가의 문학사적 소외는 월남 여성작가들을 통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월남 여성작가인 박순녀와 이정호는 1960년대 문단에서 냉전주의를 비판하는 문제작을 다수 발표했지만 군소작가(群小作家)라는 옹색한 위치에 머물러 왔다. 1990년대에 문화론적 연구가 부상하면서 정전(正典)을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나 관심을 반영한 문학 제도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어[3] 정전이 여성과 소수자의 소외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문학사 정전을 새롭게 탈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문학사에서 잊힌 월북 작가가 발굴되고, 1990년대를 진동시킨 페미니즘의 영향력을 반영하듯이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새

1 남한 정부는 월남민의 탈향을 억압적인 공산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엑소더스'로 묘사했지만 이는 실제 월남민의 탈향 동인에 대한 고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한 정부의 월남민에 대한 상징 조작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정주아, 「'적치(敵治) 6년간'과 문학 행위의 조건-1·4 후퇴 시기 월남작가 박남수와 김이석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119쪽; 김귀옥, 「아래로부터의 반공 이데올로기 허물기」, 『경제와 사회』 제43호, 비판사회학회, 1999, 236쪽; 전소영, 「해방 이후 '월남작가'의 존재 방식 1945~1953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4호,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14, 383-420쪽.

2 월남작가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다음을 참조할 것. 서세림, 「월남문학의 유형-'경계인'의 몇 가지 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7쪽.

3 고규진에 의하면 정전 형성이란 사회나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집단(대개 정치적, 문화적 엘리트)이 후속 세대를 위해 의미 깊고 가치있는 전통 요소로 여겨지는 텍스트를 선택하여 문화적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전은 정전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를 구성하고자 할 때 생긴다. 고규진, 『정전의 해부』, 전북대학교 출판부, 2016, 134-135쪽 참조.

롭게 정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분단 극복을 위한 한국문학사 서술과 정전화 작업 속에서도 월남 여성작가는 냉전체제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글쓰기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월남 여성작가 중 박순녀와 이정호는 작품의 양도 많고 그 문학적 성취도 높지만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 들어 박순녀에 대한 연구는 늘고 있지만[4] 이정호는 국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조차 그 이름이 낯선 작가다.

한국여성문학사는 기존의 한국문학사에 '타자'들의 문학사를 단순히 첨가하는 복수(複數)의 문학사가 아니라 자국문학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문학사여야 한다고 할 때, 월남 여성작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월남 여성작가들은 사실상 분단을 지향하며 국민을 군사주의적으로 조직해 온 냉전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기억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 냉전체제를 지탱하는 군사주의 문화는 여성의 권리와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전쟁의 부조리를 심문하는 여성의 글쓰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6.25 전쟁은 동족상잔의 수난사나 반공서사로 단일하게 기억되어 왔는데, 특히 남성들의 수난과 희생을 기념하는 전쟁 서사는 독점적이라고 할 만큼 생산되었다. 전시 강간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나듯이 전쟁은 여성의 삶과 일상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전쟁 기억은 억압됨으로써 여성은 냉전을 비판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주체가 되기 어려웠다. 기만적이게도 전쟁에 관한 담론은 여성의 취약성에 의존함으로써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성을 이상화하고, 취약성으로 기술된 여성성은 여성의 미덕이나 성 규범으로 전도되어 여성의 자유 실현을 가로막는 구실이 되었다. 베티 리어던은 이러한 모

4 박순녀에 대한 그간의 연구로 다음을 참조할 것. 이명희, 「반공주의와 작가정신: 월남작가 박순녀의 경우」,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8, 7-38쪽; 정미지, 「박순녀 문학의 젠더 주체와 '불온'의 재현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3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27-255쪽; 서은주, 「비판적 지성과 젠더, 그 재현의 문제: 박순녀의 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65-99쪽; 김주리, 「월남 여성작가 박순녀의 소설 속 배회하는 여성의 표상」, 『어문론총』 제8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81-210쪽; 류진희, 「월남 여성작가의 '이북'공간-임옥인의 「월남전후」와 박순녀의 「어떤 파리」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209-231쪽; 이소영, 「문화 냉전과 도착(倒錯)적 젠더-한무숙과 박순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59호, 상허학회, 2020, 107-153쪽.

순에 주목해 냉전체제를 인간의 불평등을 전제하는 권위주의적 원칙을 기반으로 강제적 힘에 의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경쟁적 사회질서로 재정의하고, 성차별주의와 냉전체제의 뿌리는 사실상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한다.[5] 전쟁이 인간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의 존재가 있어서라기 보다 특권을 유지하려는 남성들의 욕망과 공모에 의해 발생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렇듯 전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리어든은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여성을 남성중심적인 냉전 논리를 넘어서는 평화 운동의 주체로 제시한다.[6]

그간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냉전체제를 비판함으로써 여성 글쓰기의 질적 전환을 가져온 작가로 박완서에 주목해왔다. 자신의 자전적 체험에 바탕을 둔 여러 작품들을 통해 박완서가 애도가 금지된 오빠, 즉 이데올로기 주체의 시신을 끌고 나와 냉전 권력에 대한 강요된 순응을 거부하는 불온한 여성 주체를 선보이는 장면은 분명 새로운 것이었다. 한 예로 『엄마의 말뚝(2)』(1981)에서 중년의 여성 화자는 자신이 집을 비울 때면 화(禍)가 일어날까 두려워하면서도 "나는 그 섬뜩함 자체를 사랑했다"고[7] 말하는 이상심리의 소유자다. 화자는 자신을 사로잡는 "기분 나쁘게 섬뜩한 느낌"(64)을 "뜻밖의 삶의 축복"(67)으로 여기며 그리워한다. 끔찍한 기억을 잊고 잘 먹고 사는 것으로 전쟁에 복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망각으로는 억울하게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랠 수도, 살아남은 자의 죄책도 덜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여성 화자가 늙은 어머니가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티" 없이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111)으로 철조망 너머로 아들의 뼛가

5 냉전체제는 나라를 지키는 남성과 남성의 보호를 받는 여성이라는 구도를 생산해 내고, 사회구성원이 "군사적 가치와 정책이 안전하고 질서잡힌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신념 체계인 군사주의"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성차별주의, 가부장제를 온존시킨다. 베티 리어든, 황미요조 역,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나무연필, 2020, 47쪽 참조.

6 베티 리어든에 의하면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전쟁 원인과 핵무기 경쟁과 핵전쟁 위협이 없는 상태이고, 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 폭력 등 모든 폭력이 부재한 상태다. 베티 리어든, 강순원 역, 『포괄적 평화교육』, 살림터, 2021, 48쪽 참조.

7 박완서, 「엄마의 말뚝(2)」,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9, 67쪽. 이하 인용 시에 본문에 쪽수 표시함.

루를 날리는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냉전체제와 싸우는 여성작가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8] 이렇듯 냉전의 금기를 허무는 시도들이 있어 여성문학사는 "여류문학"이라는 게토화된 지정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을 살펴본다면 "여류문학"에 균열을 내는 여성작가들이 이미 존재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냉전체제는 6.25 전쟁을 전후로 여성작가들이 "여류" "규수"라는 차별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남한 문단의 하위 카테고리로써 "여류문학" 장에 종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힘이었다. 여성작가들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성 신화의 유포자이자 냉전 권력의 들러리였다.[9] 여성 문단은 김동리, 조연현으로 대표되는 우익 문학 권력의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1960년 4.19 혁명을 전후로 문학 청년들이 우(右) 편향의 문학 권력을 향해 오이디푸스적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몇몇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문학성 시비가 이루어질 만큼 여성문학에 대한 문단의 인식은 비판적인 것이었다.[10] 그런데 4월 혁명이 문단에 불어넣은 새로운 바람 속에서 여성성을 불온성으로 번역하며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는 여성작가들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거의 무시되었다. 박순녀, 박시정, 손장순, 이정호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1960년대 여성문학은 불온한 섹슈얼리티의 '아프레게르'(après-guerre)를 서사의 중심에 두고 재건 정치의 여성 혐오에 대항했던 1950년대 여성문학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11] 이정호와 박순녀는 6.25

8 박완서는 냉전 권력에 구멍을 내는 기억과 증언 주체를 자임함으로써 "단 하나 여류작가는 안 되리라, 어떡하든 그냥 작가가 돼 보리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할 수 있다. 박완서, 「추한 나이테가 싫다」, 『꼴지에게 박완서보내는 갈채』, 평민사, 1977, 60쪽.

9 최정희, 장덕조, 모윤숙, 손소희 등 여성작가들은 6.25 전쟁기에 종군작가단에 속해 전쟁의 치어리더를 마다하지 않았다. 김양선, 「6.25 전쟁기 여성문학 장의 형성」,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154-181쪽 참조.

10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를 둘러싼 김동리-이어령, 김우종-이어령의 논쟁을 볼 것. 졸고, 「한국 여성문학의 형성과 성장-해방과 전쟁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26호, 한림과학원, 2020, 58쪽 참조.

11 강신재, 박경리, 손장순, 한말숙 등 1950-60년대 주요 여성작가들은 "전쟁미망인", "양공주", 여대생 등 이른바 '아프레 걸'을 주인공으로 삼고 세계적 문예사조로서 실존주의를 여성중심적으로 차용함으로써 풍기문란의 재건 정치에 반격을 가했다.

전쟁에 대한 기억 작업을 통해 냉전주의 권력에 균열을 가하며 여성 글쓰기의 변화를 꾀했던 신진 작가로 196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재해석을 유도한다.[12]

사회학자 조은은 "군국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 친미와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가 일상의 문화로 자리잡은 사회에서 여성들은 국가와 남성이 만들어 낸 이야기에 포위되었고 그들의 기억과 욕망을 접고 남성과 국가가 만들어 낸 기억과 욕망을 소비해야 했"[13]으며, 이는 냉전문화 속에서 여성들을 "'불확실한 시민권자'" 혹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최하위 민중"으로 위치짓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조은의 분석은 개발 독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강한 군국주의적 특징과 그로 인한 성별 위계질서를 내포하는 관제 민족주의에 대한 대중의 승인과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일깨운다. 냉전과 민족의 수사학을 내세운 국가의 개발 기획 아래 남성들만이 권리를 갖는 일종의 (냉전) 사회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남성들은 통치 권력과 일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로 냉전 개발은 식민과 전쟁의 상처로 인해 무기력했던 한국의 남성들이 현대사에서 거의 최초로 자신감을 얻고 '초남성'(超男性)으로 변모할 수 있게 했던 도약대였다. 해방과 전쟁 후 여성에게 실권을 빼앗겼다고 자조했던 남성들은 박정희 체제의 일원이 되어 개발의 전사를 자처하며 확실히 '남성성'을 획득했다. 반면에 확실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여성들은 가정영역으로 밀려나 남성들에게 의존하는 굴욕적 위치를 강요당했다.

여성의 종속적 위치는 6.25 전쟁에 대한 여성의 침묵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남성이 전쟁 서사를 독점적으로 생산했고, 이는 남성이 전후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동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성들의 전쟁 기억과 재현의 힘을 역설한다. "여성들의 침묵을 재기억화하고 저항 기억을 재생산해 내는 일은 냉전문

12 이정호와 박순녀는 같은 월남 작가이지만 전후 사회 재건의 마녀정치적 속성을 비판하기보다 기독교 여성성을 이상화함으로써 "여류명사"로서 특권을 누렸던 임옥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박순녀와 이정호는 각각 1928년, 1930년도에 출생해 1915년에 태어난 임옥인과 세대 차가 날 뿐더러 등단 시기도 1960년대와 식민지기로 상이하다. 이 글에서는 동시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박순녀와 이정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겠다.

13 조은, 「냉전문화 속 여성의 침묵과 기억의 정치화」, 『여성과 평화』 제3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3, 74쪽.

화의 균열을 가져오는”[14]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순녀는 등단 이래 반복적으로 전쟁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한편으로 파시즘, 감시사회, 남한 엘리트 집단의 속물성 등 냉전의 젠더 정치를 폭넓게 조망하며 난민적 삶의 양태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횡단을 멈추지 않는 여성의 자기형성기를 선보였다. 전쟁과 냉전 권력에 대한 저항 속에서 비판적으로 사유하며 가부장제의 여성성 규범에 균열을 내는 불온한 여성 주체를 창조한 것이다. 또한 이정호는 한미군사 합작 사건인 ‘홍남철수’에 대한 증언을 통해 가부장적 냉전주의의 덫에 갇힌 여성을 해방시켰다. 이들이 1960년대 문학 공간에서 시도한 글쓰기는 냉전체제를 침식할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것이다.[15]

2 불온한 자유를 꿈꾸는 여성의 자기형성기: 박순녀

주지하다시피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신여성’이 출현하며 가부장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도 출현했던 신여성과 붉은 사회주의 여성들을 위시로 한 여성해방의 물결은 제국주의 일본의 군사적 무장이 본격화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써 억눌렸다. 여성해방운동은 1945년에 민족이 해방되면서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가부장제가 일소되지 못한 식민지의 여성들에게 해방은 제국주의와 봉건적 가부장제라는 이중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었다. 박순녀의 문학은 탈식민 국가 건설을 위한 열망과 함께 민족의 이동이 시작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남쪽을 향하는 이북 출신의 해방 세대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로, 작가의 자전적 체험에 뿌리박고 있다.[16] 그러나 박순녀의 문학을 지극히 개인적인 회고나 우울증적인 실향 서사에

14 위의 글, 83쪽.

15 이 글에서는 주로 두 작가의 1960년대에 발표된 작품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박순녀의 경우에 「어떤 파리」·「대한민국의 거지」는 모두 1970년에 발표되었지만 전작들과 연관성이 높아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16 박순녀(朴順女)는 1928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원산여자사범학교를 수료하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해방이 이루어진 1945년에 월남했다. 작가 자신이 밝힌 탈향의 동기는 중매 결혼에 대한 반감과 연애 결혼에 대한 선망, 북한에는 여자들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없

가두어 두어서는 곤란하다. 박순녀 문학에는 해방과 함께 싹튼 여성해방의 이상이 6.25 전쟁으로 다시 억눌리지만, 전쟁과 냉전체제를 비판하며 인간해방의 도정을 멈추지 않는 월남민 여성의 분투가 핍진하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17] 박순녀의 한국전쟁에 대한 회고는 전쟁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휴머니즘 서사 일반으로[18]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자기 서사인 한편으로 남한의 냉전체제에 동화불가능한 난민성의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나 민족으로 수렴되지 않는 탈경계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케이스워커」는 196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데뷔작으로[19] 민족적 공동체 속

다는 것이었다. 박순녀는 남한에서 경성여자사범대학에 입학하지만 1946년 미군정에 의해 일제 시대의 여러 단과대학들을 통폐합해 단일 종합대학인 국립서울대학교를 설립하는 '국대안'이 시행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 영어과에서 수학했다. 작가 인터뷰와 자전성 짙은 작품들을 미루어 볼 때, 대학 재학 중 결혼하고 6.25 전쟁기에 이혼해 아들 둘을 혼자서 키운 것으로 짐작된다. 30대 초반에 이북 출신의 작가 김이석과 재혼해 딸 하나를 낳았지만 결혼 6년만에 김이석이 사망해 혼자가 되었다. 동명여고 교사, 방송국 구성작가 등 다양한 이력이 있지만 주로 소설 쓰기와 번역으로 생활을 꾸렸다. 해방 후 조성되었던 문인촌에서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작가들과 친교가 없지는 않았지만 문단 내 주류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문학적 계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순녀는 대개 여성작가들과 달리 문단에서 권위가 높은 작가나 평론가의 추천을 받아 작가가 되는 신인추천제가 아니라 1960년『조선일보』신춘문예에「케이스워커」가 가작 입선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등단 후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자『사상계』에「아이 러브 유」(1962),「외인촌입구」(1964)를 발표하며 재등단했다. 박순녀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박순녀(구술)·박선애(대담자),『박순녀 구술채록문』, 2005.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5656

17 박순녀의 문학은 월남 여성들의 이동이 이념적, 경제적인 동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부장제로부터의 여성의 해방과 성장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소설 속 월남 여성들은 십대 후반의 나이로 성적 약탈과 죽음의 위협이 편재하는 38선을 여러 번 넘나든다. 시련을 자초하더라도 자유가 없는 안락에 갇히지 않고 온전히 해방된 개인의 삶을 향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박순녀의 소설은 이념적 쟁론으로만 기억되는 해방기가 식민지와 가부장제의 이중적 구속 상태에 묶여 있었던 여성들의 자유를 향한 이동과 모험의 시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졸고,「해방세대 여성의 이동과 탈주-박순녀의 소설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제32호, 인천대인문학연구소, 2019, 149-173쪽.

18 피난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작품으로「싸움의 날의 동포」,「내가 버린 어머니」 등을 들 수 있다.

19 「케이스워커」는 작가의 창작집과 선집 어디에도 수록되지 않아 그간 연구가 이루어지지

에서 공감되거나 애도되지 못한 여성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냉전체제는 전쟁을 전방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상상력 속에 가두기 때문에 여성은 전쟁터에서 남성들보다 안전하며, 여성의 생존은 남성들의 희생에 빚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전쟁을 전투의 현장으로 환원하지 않고 일상영역에 대한 파괴로 보면, 전시 여성 강간 같은 극적인 사례가 아닐지라도 여성들의 수난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틈이 열린다. 「케이스워커」는 그 얼개만 보면, 미국에 본부를 둔 재단 '미망인원호회'의 실태조사원(caseworker) 임유옥의 실연담이라고 할 수 있다. 유옥은 자신에게 구애하던 신문기자 민호에게 비밀 아닌 비밀이 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이 혼전 임신을 했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 약혼자는 징집되어 실종되고, 전쟁의 궁핍 속에서 아이마저 잃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러자 유옥이 "한낱 이상에만 불타고 있는" "남과는 달리 단순하고도 결백한" 남자로 믿었던 민호는 평소 구제 물건이라면 질색하던 습성처럼 유옥을 떠난다. 기습적으로 실연을 당한 유옥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구호물자로 치장해 겨우 숙녀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회의 환대를 받지 못하는 순결 잃은 여자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서글퍼지는 대로 거울속의 나를 보고 싱긋 웃어주었다"(원문 그대로-필자)는 서술이 말해주듯이 유옥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회피하지 않고 긍정한다.

자기를 향한 미소는 유옥이 순결하지 않은 여성에게 세상이 가하는 수치심의 매질에 저항하며 대항적 위치를 획득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후 유옥은 전쟁미망인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교육 받은 지식인인 유옥은 전쟁미망인을 자신에게 할당된 직업적 관리 대상으로 여기고 이들을 경멸하기조차 했다. 미국이 주는 적은 달러와 구호물자를 얻기 위해 흑과부로 위장하는 거짓말쟁이, 기관의 눈을 피해 남자와 동거하는 '난잡'하기조차 한 섹슈얼리티이자 남자에게 전재산을 빼앗기고 임신한 채 버려지는 어리석은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유옥은 그녀 어머니의 거듭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전쟁미망인인 복희 엄마에 대한 원조를 거부했다. 이미 많은 아이가 있음에도 사랑을 원하고, 남자가 떠난

않았다. 이 작품은 현재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발표 당시의 원문 그대로를 볼 수 있다.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178119600209e1047&set_date=19600209&page_no=4 (검색일: 2021.2. 검색어: 박순녀, 조선일보, 케이스워커)

뒤 빈곤 속에서 출산을 앞둔 복희 엄마에게 환멸의 감정마저 품었다. 그러나 실연을 계기로 연대감을 회복한 듯 유옥은 거센 비를 뚫고 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복희 엄마에게 달려 간다. "결국 여자만이 울어야 하는가 애요"(원문 그대로-필자)라는 유옥의 마음 속 항의처럼, 여성의 전쟁은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혼자의 수난이기 때문이다. 유옥의 시선을 통해 복희 엄마의 출산 장면은 벌거벗은 채 "핏속에서 뒹구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동물인 양 소리를 치는 처절한 고투로 그려진다. 가부장적 민족 국가가 경원하는 위험한 여성에 대한 상상과 달리 여성이 짊어진 곤경의 깊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20]

작가의 두 번째 소설 「아이 러브 유」[21]는 박순녀의 문학적 페르소나인 이북 출신 여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첫 작품으로 파시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불온한 여성 주체로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성인으로 짐작되는 화자(명화)는 자신이 청소녀기를 보냈던 태평양 전쟁기 조선의 공립여학교를 회고한다. 회상 속에서 조선인 여학생들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하는 일본인 교장에 의해 신사(神社) 터 닦기, 모심기 근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동원되고 구국의 모성이 되기를 종용받는다. 파시즘 교육은 여성을 성녀(군국의 모성)/창부로 이분화함으로써 여성의 자유를 억누르지만, 여학생들은 전쟁을 센티멘탈한

20 출산 장면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작가로서의 대항적 의식을 보여준다. 6.25 전쟁 후에는 풍속정화라는 미명 하에 주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감시가 작동되는 젠더화된 사회재건이 이루어졌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색정적으로 과잉 재현되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으로 각색되었고, 이러한 상징 작업들을 통해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했다.

21 앞서 말했지만 박순녀는 월남민으로 문단의 계보가 없었기 때문에 등단 후에 청탁을 받지 못하자 당시 대표적인 체제비판적 종합지인 『사상계』를 통해 재등단했다. 박순녀는 불온한 저항 정신을 가진 여성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4월 혁명 이후 일깨워진 자유, 지성, 참여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1960년대 새로운 문학운동의 흐름 속에 끼어드는 한편으로 가부장제와 남성성에 대한 비판을 시도함으로써 선배 여성작가의 글쓰기 전통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획득했다. 전후 여성문학은 단란하고 이상적인 핵가족을 위협하는 '악녀'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사랑의 신화에 의지해 '성녀'로 무장하는가 하면 가족 제도 바깥에서 가정을 위협하는 나쁜 여자들에게 은밀한 매혹을 품는 성녀/마녀 서사의 자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박순녀는 부조리한 역사의 사건들과 젠더를 교차시킴으로써 냉전의 권력들에 맞서는 더 근본적이고 또 대담한 저항의 방식을 찾고자 했다.

드라마로 낭만화할 뿐 식민지/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인공 명화는 적십자 간호원 출정식에서 아이를 떼놓고 전쟁터로 끌려 나가는 조선인 간호병을 목도한 후, 자신이 "세이자와 설유와 반성문"[22] 등 복종의 기술들에 길들여져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각성한 명화는 적십자 간호원을 지원하라는 일인 교장의 명령에 불복종해 친구 봉숙과 함께 교내 스트라이크를 주도하고 '비국민'으로 몰려 퇴학당한다. 명화는 마침 민족이 해방되자 더 큰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38선을 향한다.

「아이 러브 유」는 박순녀 문학의 출사표라고 할 수 있다. 명화의 "나는 내가 아니,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소녀로 태어난 나의 환경이 운명적으로 너무나도 불순하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다. 그것은, 처음 멘스가 있던 날의 '여자'에 대한 증오라 할까, 경악이라 할까"(43)라는 독백은 의미심장하다.[23] 이 문장은 식민지인의 삶은 당사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화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제국주의는 지배자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며 피식민자가 지배자와 동일해질 수 있다는 환상을 주입하지만, 조선인은 도처에 존재하는 차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된 자유의 획득은 막연히 자유를 동경하는 것을 넘어서 통치 권력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탈식민을 향한 저항을 필요로 한다.[24] 자유는 비판적 지성의 획득, 정치적 고초 혹은 가난을 감내하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장은 특별한데, 그것은 식민지인의 굴욕적 처지를 "여자라는 것의 증오"와 중

22 박순녀, 「아이 러브 유」, 『박순녀 작품집』, 최강민 편, 지만지, 2010, 35쪽. 이후부터 작품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에 쪽수만 표기하겠다.

23 작가의 회고에 따르면 심사자 황순원은 이 소설을 다소 "귀여운 작품"이라고 평했다.(작가 인터뷰, 「제2차 소설가 김이석과의 만남 그리고 등단」, 86쪽 참고) 일제 말기 상황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재현을 바탕으로 식민지 여성의 억압과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청소년 독물인 양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작품이 발표된 1960년대 초는 파시즘의 정치공학에 의해 감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라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회고조의 안이한 작품으로 보는 것도 곤란하다.

24 명화는 같은 조선인이지만 순응을 체질화한 민선생이나 동급생 옥자가 아니라 일본인 교사 야마끼 선생(브라운 씨)에게 더 동질성을 느낀다. 자신과 야마끼 선생을 식민/제국, 피해자/가해자로 환원하지 않는 것이다. 명화는 일본이 패망하자 쫓겨가는 야마끼 선생의 맨발을 보며 그가 소문처럼 "육발이"가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다섯 개의 발가락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한다.

첩시킴으로써 소녀의 성장을 탈식민과 여성해방이라는 이중의 과제로 견인하고 있어서다.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여성은 여성성을 앞세워 순응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담론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발견은 선구적이다. 명화가 일련의 관찰, 경험, 지적 방황 끝에 발견하고 획득하는 불온한 여성성은 일본인 교장이 여학생들을 꾸짖는 "색광, 창녀" 등 여성 규율 담론에 대한 냉소와 비판을 담고 있어 페미니스트 성장 서사의 단초조차 엿볼 수 있다.

이렇듯 불온성을 해방된 여성의 자질로 전유한 박순녀는 이후에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찰을 통해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 즉 난민적 주체성을 획득해 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1960년대에 박순녀는 주로 남한의 신(新)식민지적 위치를 가시화하고 미국과 친미 냉전권력의 공모자인 엘리트 남성에 대한 관찰과 조망을 통해 전쟁과 냉전체제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다.[25] 그 중 「외인촌 입구(外人村 入口)」(1964)는 작가 자신의 미군부대 하우스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미군 부대를 보호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허위와 미국의 신(新)식민지로서 남한의 굴욕적인 위치가 폭로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미군 장교들은 한국인들을 "슬래키 보이"(slacky boy)라고 부르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까지 식민지에서 '재미'를 보려는 탐욕스러운 지배자로 그려진다. 문제적인 것은 한국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서울대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보이들은 자신의 출세 혹은 안일을 위해서 제국의 부조리를 눈감는다는 점이다. 김순배는 지성인을 자처하지만 실상 미국 이민을 위해 미군 장교가 저지르는 부정에 협력하는 속물이고, 김찬우는 식민지 남성이라는 자괴감을 남성적인 육체를 획득하는 것으로 상쇄하고자 하는 반(反)지성적인 야만인이다. 두 남성 중 1.4 후퇴 때 북한을 떠난 김순배는 남한 사회에 대한 실망으로 미국으로 탈주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나'는 김순배와 처지가 같은 월남민이지만 그의 기만을 비판하며 탈식민 주체로서 여성의식을 획득한다.

남한의 신식민지적 위치에 대한 비판은 해방과 6.25 전쟁이 남긴 산물인 미

25 이 글에서 분석하는 「외인촌 입구」, 「엘리제 초(抄)」 외에도 영어 열풍, 미국 이민 선망 등 '아메리카니즘'을 통해 전후 남한 사회를 조망한 작품으로 「영어열」(1966), 「전(前)시대적 이야기」(1967), 「잘못 온 청년」(1970), 「귀향연습」(1970) 등을 들 수 있다.

군 기지촌(基地村)과 성산업에 대한 서사화로 이어진다. 「엘리제 초(抄)」(1965)의 남주인공인 영배는 휴전이 되어 징집이 해제되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전투 중 지나쳤던 시골 마을을 찾아 간다. 전쟁 중에 우연히 폭격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남아 있던 초가집과 콩밭에서 김을 매고 있는 처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골 마을이 "처녀들이 조용히 어른으로 변하고 어린애를 낳아서 기르는 땅"[26](109)으로 묘사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찾은 마을은 초가집 대신 영어 간판을 단 술집이 즐비한 기지촌으로, 김을 매던 시골 처녀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달러를 벌기 위해 미군을 유혹하는 "양공주"가 되어 버렸다. 영배는 삶의 무의미에 사로잡힌듯 기지촌에 주저앉아 버린다. 전쟁은 신성한 어떤 의미조차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남한이 미국의 신식민지가 되기 위한 절차였다는 발견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다.

전후 한국의 탈식민 문학에서 기지촌과 국제 매춘은 대단히 중요한 문학적 주제였다. 그런데 이 작품은 주로 가부장적 민족문학의 시야 속에서 기지촌을 재현한 남성중심적인 작품과 차이가 있다. 반미 민족주의라는 감정/정동의 동학 속에서 영배에게 반식민 민족 주체의 위치를 부여하거나 오염의 수사학을 빌어 애리와 혜련 등 "양공주"들을 민족의 식민 위치를 보여주는 기호로 환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배는 마담 미시시피라는 술집의 심부름꾼이자 "양공주"의 기둥 서방으로 자신의 인생을 유기하는 실격당한 남성으로 그려진다. 또한 양공주 여성들은 착한 여자/나쁜 여자로 구별지워져 동정이나 혐오의 이분법으로 대상화되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기지촌에 갇힌 희생자로 그려진다. 기지촌 공간과 섹스 산업에 대한 재현은 미국이 남한의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국에게 희생과 보상을 요구하는 지배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이라는 냉전 권력의 권위를 침식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지촌은 남성의 성적 본능이나 성 판매 여성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지 정치'[27]라는 맥락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기

26 박순녀, 「엘리제 초」, 『박순녀 작품집』, 최강민 편, 지만지, 2010, 109쪽.

27 기지촌 성 산업은 남성 군인의 성 본능으로 인해 발생한 필요악이거나 성 판매 여성 개인의 부도덕한 선택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기지촌은 기지 정치라는 맥락을 통해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기지 정치'는 피주둔 국가의 군사 시설의 상태와 작동에 대한 주둔국와 피주

지촌은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1945년에 형성되어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기인 1960-1980년대에 걸쳐 호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지촌이 냉전의 국제정치 속에서 식민지 여성들의 몸이 주둔군인 미군을 위한 유흥, 위안의 대상이 되는 섹스동맹의 지리 공간임을 뜻한다. 기지촌은 주둔군인 미국의 피식민자에 대한 보상 요구, 피식민자인 남한의 안보와 내부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 탄생한 제국의 위안소인 것이다.[28] 남한의 냉전 권력들은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않은 미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국의 가난한 처녀들을 위안부로 공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박순녀는 남한의 신식민지성을 폭로하며 미국과 남한의 냉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는 한편으로 월남민들의 전쟁과 분단 체험에 천착함으로써 남한 사회에 대한 동화를 거부하는 난민성, 즉 이방인성을 획득한다. 작중 인물을 저자의 알레고리라고 본다면, 박순녀 문학의 '저자'는 월남민들의 불우를 외면할 수 없어 고독과 가난을 선택하는 월남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박순녀는 여러 작품에서 국제적 냉전형성의 전쟁으로서 6.25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이별하고 남한 사회에서 차별에 노출되는 월남민의 처지를 이야기한다. 「잘못 온 청년」은 월남 여성인 '나'의 이북 청년들에 대한 애도기다. '나'는 남한의 상류 사회 남자와 연애 결혼하지만 세상에 문을 닫아 걸고 고립을 자처한다. 남한의 엘리트이면서도 "인생은 불길(不吉)과 손해와 비현실을 어떻게 피해 사느냐에 의미가

둔국 간의 상호 관계 및 작용을 뜻하는 용어다. 신시아 인로 등 여성 연구자들은 기지 정치를 군사주의의 젠더화된 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며 군사주의는 기지 내/외부에 존재하는 위안자로서의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미덕, 「주한미군 기지 정치(Base Politics) 연구에 대한 검토」, 『아태연구』 제21권 제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4, 113-117쪽 참조.

28 캐서린 문의 기지촌 정화운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참조할 것. "군대 기지촌에서 매춘 여성으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의 삶은 1950년대 초부터 미군의 활동과 복지에 밀접한 연관을 맺어 왔다. 주한 미군과 한국의 당사자들은 이 '특수 엔터테이너들'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해 왔다. 1970년대 초반 미국과 한국은 그러한 공동 관리를 하나로 통합했다." 캐서린 H. S. 문, 이정주 역,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20쪽.

있”[29](365)다고 여기는 남편의 속물성을 용인할 수 없어서다. 이렇듯 남편과 소극적 불화를 이어가던 ‘나’가 이혼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은 이북 청년 셋과의 만남과 교감이었다. ‘나’는 전도유망하던 월남 청년들을 비극 속으로 끌고 간 전쟁과 분단 현실을 외면한 채 현숙한 아내 노릇을 하며 부를 축적하고 일상적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것이다.

홍섭이와 그의 친구들은 함흥사건의 주동자로 시베리아 유형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월남한다. 남한에서 군인이 된 월남 청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6.25 전쟁과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셋 중 둘은 전사한다. 이러한 서사는 얼핏 반공주의를 아름답게 각색한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함흥학생사건’은 한국에서 함흥반공학생의거라는 명명으로 정치화되어왔고, 월남 청년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소속되기를 열망하며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순녀는 함흥반공학생의거가 아니라 함흥학생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이 사건을 “자유남한을 동경하며 학생들이 앞장을 서고 민간이 호응한 〈쌀을 달라!〉는, 진주군인 소련당국에 대한 민중봉기”(365)로 고쳐쓰기함으로써 남한의 냉전 권력이 이북 청년들의 봉기를 정치화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또한 “이북 출신은 미래와 연결되는 출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대가리를 싸매고 끼어드는 겁니다”(369)라는 월남 청년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군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지향이나 남한 사회에 대한 선망이 아니라 소속이 필요했기 때문에 월남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저당잡혔던 것이다. 군대가 “이남의 인재 배양소”로 풍자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월남 청년들은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에서 생존 자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군인이 된 것이다. 이들의 참전과 전사는 월남 청년들이 남한의 냉전 권력에 의해 배치되어 소모되는 전쟁 기계임을 암시한다. 월남 청년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타자적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남한의 자유를 위해 죽겠다고 자기 자신을 방어했던 것이다.

이렇듯 월남민의 소수자 정체성에 뿌리박은 박순녀 문학은 휴전 후 6.25 전쟁의 희생자에 대한 애도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자신이 당한 폭력을 고발조차 할

29 박순녀, 「잘못 온 청년」, 『어떤 파리』, 정음사, 1972, 365쪽.

수 없었던 월남 여성들의 이야기 역시 들려줌으로써 전쟁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한다. 6.25 전쟁의 폭력성은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과잉 초점화됨으로써 여성과 소수자들이 겪은 전쟁에 관한 증언은 사실상 억압되었기에 박순녀의 전쟁 회고는 희소성의 가치마저 갖는다.[30] 「대한민국의 거지」는 「허깨비와 함께」(1977)와 더불어 전시 하 여성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북 출신의 여대생들을 위한 남한의 여자 기숙사 공간을 배경으로 진하와 현세의 남한 살이와 우정을 그린 이 작품은 해방기 여성들을 사로잡은 열기 섞인 흥분을 보여준다. 특히 신의주에서 왔다는 현세는 좌우익 이념 갈등으로 이야기되는 해방기가 여성들에게 호모 에로티쿠스로서 모험의 시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현세는 "남한의 미군이 보고 싶어 연인 찾아오듯"[31] 월경을 했다고 고백할 만큼 미국에 대한 강한 선망을 드러낸다. 현세의 미국 선망은 동족은 망해도 나만 잘 살겠다는 속물성의 표현이라기보다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국선망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강지처가 되느니 차라리 "첩"이 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할 만큼 가부장제를 여성의 무덤으로 여기며 질색하기 때문이다. 현세는 식민 지배자가 물러

30 박순녀의 상당수의 작품들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이후부터 6.25 전쟁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월남민 여성들이 겪은 해방과 전쟁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억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념 갈등으로 점철된 해방 공간에서 박순녀의 여성 저자들은 무슨 일을 했으며, 6.25 전쟁 중에 무엇을 보고 겪었는지가 상세하게 그려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작가 자신의 불철저함 탓이라기보다 남한 사회에서 월남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갖기 어려웠음을 암시한다. 국가보안법이 작동하는 남한의 감시 사회에서 월남 작가는 남한 출신의 작가보다 훨씬 더 발언의 자유가 없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작가 자신과 주변인들의 직접적인 체험에 뿌리 박은 것이었다면 소설화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작가들은 남성 작가들보다 창조자로서의 저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순녀는 한 인터뷰에서 여성 작가가 글을 쓰는 일은 공중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한 바 있다. 여성 작가는 무엇이든지 쓸 수 있는 '작가'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젠더로 독자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쓰는 여성들은 쓰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작가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하는 관음증적 독자와 긴장어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쓰는 주체는 자신의 글이 늘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 의해 읽혀진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가의 젠더를 글쓰기의 피독성/응답성이라는 주제로 분석한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것. (이다 유코, 김효순 역, 『일본 근현대 여성문학 선집 18-이다 유코』, 어문학사, 2019.)

31 박순녀, 「대한민국의 거지」, 『칠법전서』, 일지사, 1976, 185쪽. 이하 본문에 쪽수만 표기.

나고 친족 공동체의 감시도 사라진 해방의 거리에서 숱한 소문을 뿌리며 여러 남자들과 연애를 한다.

6.25 전쟁은 호모 에로티쿠스로서 현세의 모험에 제동을 건다. 화자인 '나'(진하) 보다 현세는 전쟁의 시간동안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내상을 입는다. 현세는 공산당이 점령한 서울에서 "자본주의 부르조아"라고 잡혀가 "총살에 해당하는 반동"으로 몰려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고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203)으로 묘사된 데서 짐작가능하듯이 성폭력을 당한다. 현세는 가정교사를 하며 고학을 하는 가난한 여대생이고, 그녀가 서울에 남아 있었던 것은 남한에 일가친척이 없고 주인집은 피란 무리 속에 그녀를 끼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세는 월남을 했다는 이유로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을 당한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여성과 민중을 내세워 고결함을 포장하지만 현세에게 전쟁은 억울하기만한 폭력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이 현세의 삶에 드리운 충격은 현세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며, 밤거리의 여인으로 배회한다는 소문을 통해서 암시된다. 현세에 관한 이야기는 현세가 흑인 청년을 유혹해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하에게 들려오지 않는다. 현세가 겪었던 전쟁은 상세하게 그려지지 않고 있지만 전쟁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의 가부장성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32]

박순녀의 냉전체제에 대한 비판은 「어떤 파리(巴理)」(1970)에서 절정에 이른다. 유신의 폭압성이 고조되는 1960년대 후반에 박순녀는 깨어 있는 시민성이

32 박순녀의 문학에서 현세가 겪은 성폭력은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며 조금씩 구체화되어간다. 「기쁜 우리 젊은 날」(1977)에서 임하는 점령 당한 서울에서 인민군 보위부에 끌려가 자유분방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징벌적인 차원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그려진다. 현세가 짝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노트를 발견한 인민군은 그녀를 타락한 부르주아로 낙인 찍고 가부장제의 규범을 벗어난 데 대한 징벌인 양 성적 모욕을 가한다. 그러나 인민군은 단죄의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웠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멀리있는 이유」(2009)는 성폭력을 당한 현세, 임하로 짐작되는 미옥의 미국 생활과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여성 화자와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해후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미옥은 전쟁의 시간동안 트라우마적 기억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듯 자신이 겪은 폭력에 대해 함구한다. 이 작품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다음을 참조할 것. 김주리, 앞의 글, 181-207쪽.

나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항적 공론장의 목소리에 공명하듯이 「어떤 파리」를 통해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시민의 자유를 가로 막는 유신 정권을 비판했다. 이 작품은 파리에 거주하는 진영이 간첩으로 몰린 남편과 함께 오랏줄에 묶여 압송되어 온 후 '증언' 여부를 둘러싸고 진영의 친구들인 중년 여성 '나'와 시인 홍재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정치적 검열의 시대에 1960년대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동백림 사건'을[33] 다루어 '감시과잉사회'의 폭력성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시대적 의의는 크다. 그러나 이러한 표층서사만이 아니라 '비판적 지성'과 '양심'을 대표하는 남성 지식인 홍재에 대한 '나'의 대항적 시선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적 시인으로 유명한 홍재는 어린 시절의 우정을 이야기하며 지연의 결백을 증언하자는 '나'의 제안을 물리치며 '여성적 감상'으로 비하한다. 진영은 "이 나라의 상류 계급에 속해 파리로 갔다가 간첩 사건에 묶이어 우리에게 돌아온 그들"[34]이라고 경계를 긋는 한편으로 "우리 사정이 감상을 알아줄 때가 못 됩니다"라고 증언에 대한 부담을 드러낸 것이다. '나'가 국제적 명성의 시인인 홍재에게 큰 실망을 느끼는 것은 진영이 남편과 함께 오랏줄에 묶이기를 자처하며 사랑, 즉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었지만 홍재로 대표되는 지식인 남성은 여성이 보여준 사랑의 용기를 무시하고 여성인 나의 결단을 이성적 냉정함이 부족한 여성적 감상성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홍재가 시인 김수영을 실존 모델로 해서 형상화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박순녀는 1960년대 진보적 공론장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 "홍재는 그 새벽에 악성의 주정을 부렸다. 위경련 환자처럼 방안을 데굴데굴 헤매고 자기혐오로 소리를 내어 울기도 했다. (중략) 나타나지 않

33 1967년 7월 8일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동백림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유럽 지역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편으로 박정희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국내의 지식인, 예술가들을 길들이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문화예술계의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등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는 혐의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정보부의 발표와 달리 동백림 사건 관계자들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34 박순녀, 「어떤 파리」, 『박순녀 작품집』, 최강민 편, 지만지, 2010, 174쪽.

는 체포의 손길을 기다리며 원죄처럼 놓여날 날이 없는 공포의식에 쫓기는 그는 그 속에서 문득 무수한 쥐떼에 아연했다. 그놈들은, 그 하등동물 놈들은 그가 무력한 것을 알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방자한 꼴로 그를 우롱했다. 고가(古家)가 썩어나는 것 같은 오물냄새를 풍기는 그놈들은 그의 전신을 마구 타오르려고 했다. 그가 손을 조금 움직여도 이놈들은 그의 약점을 아는 듯 와르르, 찍찍 간담을 서늘케 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중략)

"벌레다, 나는 보지도 말고 밟아죽여야 하는 더러운 벌레다!""(198-199)

"드디어 어느 날, 그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일 초의 시간의 차질도 없이 약속의 검은 차는 소리 없이 와 멎었다. 그런데 그 차는 너무나 검어서 빛이 나고 기이한 착각을 가져와 그때부터 그의 사고력 전부를 빛과 검은색 외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차에 실려 소정의 장소에까지 가는 동안 내내, 검은색 그리고 빛에 몰두했고 증언하는 자리에서도 그것은 문어가 뿜어대는 먹물처럼 그를 포위했다. 머리를 들어도 숙여도 검은색과 빛은 머리에 있었고 눈을 떠도 감아도 그것은 그의 안저(眼底)에 남아돌았다."(203)

그러나 이 작품이 홍재의 삶과 영혼에 밀착한 재현을 통해 냉전권력이 불온한 자유를 꿈꾸는 자유인의 정신적 삶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며 한 사람의 삶을 잔인하게 망가뜨리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인용한 첫 대목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 지하실에 숨은 홍재의 발작과 망상에 관한 것으로, 냉전 권력을 쥐떼로 인간을 하등 동물조차 되지 못하는 벌레로 알레고리화하고 있다. 단순히 냉전의 덫에 갇힌 일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홍재의 감정/정동에 밀착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 냉전주의를 마치 생물처럼 그렸다는 점은 이 작품의 득의의 성과이다. 전후 남한의 정치권력은 무질서의 해악과 위험을 제거하여 사회 조직의 안정을 도모해 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공주의 이념을 내걸어 사회를 규율화했다. 그러나 규율을 통해 감시

를 일상화하게 되면 시민은 자유를 잃고 인간성은 짓눌릴 수밖에 없다. 홍재는 불온한 저항시를 쓰지만, 그의 내면은 언제나 정치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6.25 전쟁기에 공산당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재는 불온한 자유를 꿈꾸며 권력을 비판하지만 저항을 이야기할 때조차 자신을 감시하는 권력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다. 위에서 두 번째 인용문은 홍재가 모종의 공안 사건이 발생하자 용기를 내어 증언을 자처하지만 실상 공권력을 마주하자 공포로 말을 잃고 사유조차 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증언을 마친 홍재의 얼굴에는 "자기조소적인 피로만이 역력했다"(203)는 서술에서 짐작가능하듯이 홍재는 증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홍재가 아무에게도 고백하지조차 못했던 이 트라우마적 사건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홍재는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가 조국을 저버릴 뻔했던 치명적인 과오"(177)로 인해 이미 권력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고 이념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6.25 전쟁이라는 전체주의의 폭력 속에 노출된 바 있었고, 휴전이 되었지만 6.25 전쟁을 권력의 근거이자 토대로 삼은 승공 정권 하에서 우연한 목숨이라고 할 정도로 감금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왔었던 것이다. 시민적 자유를 박탈 당했지만 언어마저 빼앗길 수 없었던 시인 홍재는 벌레로 전락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사투하듯이 저항했지만 시를 썼기 때문에 언제나 쥐떼들에 둘러싸이는 악몽 같은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다. 쥐떼를 증오하지만 쥐떼의 감시로부터 도주할 수 없었던 스스로를 벌레라고 저주하며 절망하는 홍재는 비단 시인 김수영이 아니라 월남 작가 박순녀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종결 부분에서 친구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언하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 지연 역시 검은빛에 둘러싸이면서 홍재와 지연이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제나 자유를 말하지만, 권력의 환심을 사도록 길들여지고 환심을 사려는 욕망이 자기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깨닫고 자기혐오와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홍재는 냉전기 한국인의 음화와도 같은 영혼을 보여주는 자화상일 것이다.

요약하자면, 1960년대 박순녀의 문학은 이북 출신 여성의 가출과 탈향의 서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은 단순히 곡진한 체험에 머물지 않고 체제, 이념, 젠더를 중심으로 한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과 횡단의 의미를 갖는다. 박순

녀의 여성 인물들은 남한 사회로의 순응적 동일시를 거부하고 월남민 여성이라는 마이너리티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이 됨으로써 박순녀의 여성들은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속물성,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한다.[35] 박순녀는 1960년대 남한 근대화가 이상화하는 중산층 가정과 현모양처에 갇히지 않는 대항적인 여성 주체를 탐색하고 창조했다는 점에서 한국/여성문학사의 정전작가로 위치 지워져야 한다. 박정희 모더니즘은 근대화를 식민과 전쟁 같은 민족적 설움을 씻어내기 위한 것으로 호도하는 한편으로 반공 이념을 내걸어 여성을 동원했지만 여성성 규범과 가정영역에 갇히기 거부하고 자율적, 자각적인 개인이 되고자 하는 지성적인 여성 인물들을 통해 대항적 여성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준 주었다는 점에서 박순녀 문학은 전위성마저 보여준다. 기존 사회질서와 갈등과 불화를 겪다가 화해와 정상성에 이르는 보수적인 의미의 여성 성장 서사나, 자기를 외부세계로부터 고립시켜 사사화하는 성장 거부의 전략과는 구별되는 여성의 자기형성기를 통해 여성 글쓰기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3 '흥남철수'신화의 전복: 이정호

이정호(1930-2016)는[36] 1962년에 최정희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에 「인과

35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로 다음을 참고할 것. 서은주, 앞의 글, 508쪽.

36 이정호는 1930년 함경남도 신흥에서 교사의 딸로 태어나 1947년에 관북 지역의 미션스쿨인 함흥 영생여고를 졸업했다. '한설야' 상 수상자로 추천될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부친의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교사가 되었다. 함남 신흥군에서 제1인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6.25 전쟁을 겪었다. "서울에서 파견된 대한청년단 S군 본부"의 선전부에서 선전부원으로 활동했던 까닭에 흥남철수가 결정되자 '북한 피란민 제1진'으로 LST(landing ship tank: 미국의 상륙 작전용 함정)를 타고 북한을 떠났다. 남한에서는 함께 피란에 나섰던 신흥군의 대한청년단 선전부장 박철준(서울대 미대 출신으로 서울 교대의 미술교육과 교수를 역임)과 가정을 꾸렸다. 1954년에 수도 사대에 입학하고 성균관대 국문과로 편입해 1958년도에 졸업했다. 수도 사대 재학 중 조연현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1962년에 최정희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인과(因果)」, 「잔양(殘陽)」을 발표하면서 작가가 되었다. 스승 조연현, 최정희의 문단 추천, 등단지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한 작가 활동 등을 염두에 둘 때, 이정호는 우익 문단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因果)」,「잔양(殘陽)」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해 많은 작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되지 않은 작가다.[37] 함경남도 출신의 이정호는 6.25 전쟁기에 '대한청년단' 함경남도 신흥 지역 지부에서 선전부원으로 활동했던 드문 이력의 소유자다. 작가의 회고에 의하면, 신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6.25 전쟁을 맞았던 이정호는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입성하며 정치 권력이 바뀌자 "김일성 장군을 찬양한 입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끄러움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군청 학무관에 취직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파견된 대한청년단 S군 본부"의 선전부에 스카웃되어 "국군을 고무하는 시, 대한민국을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고취하는 글"[38]을 써 가두에 붙이는 선전 활동을 했다. 이러한 이력으로 인해 이정호는 국군이 북한에서 철수를 결정하자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북한을 떠날 수밖에

추정된다. 연초에는 김동리, 박종화에게 세배를 다녔고, '여류문학인협회'에서 회장 손소희 곁에서 간사직을 수행하고, 회원들로부터 손소희의 예산 부당집행 의혹이 불거졌지만 비판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일화는 이정호의 보수성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정호는 "여류 명사"로서 문학적 권력을 누린 작가는 아니었다. 이정호는 자신을 말수가 적고 활달하지 못하며 월남작가라는 특이성으로 인해 문단의 변두리에 머물렀던 존재가 희미한 작가로 회고하기도 했다. 2016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하기까지 창작집 『잔양』(1969, 문예사), 『마그마』(1972, 문조사), 『안개』(1977, 창작과비평사), 『파종기』(1978, 시청각교육), 『늪과 바람』(1989, 청사), 『노인정 산조』(2003, 한국소설가협회), 장편소설 『화려한 울음』(1976, 국제신보 연재), 『움직이는 벽』(1988, 현암사), 여러 지면에 발표한 에세이와 저자 자신에 대한 기사 및 평론 등을 모은 『그들은 왜 갔을까』(2009, 계간문예)를 발표했다. 단편 「길」로 제1회 한국소설문학상(1975), 장편 『움직이는 벽』(1988)으로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감비 천불붙이」, 『안개』, 자전적 소설인 『움직이는 벽』을 들 수 있다. 2009년에는 전10권으로 『이정호문학전집』(계간문예)을 출간했다. 지금까지의 작가 이력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이정호, 「어머니의 눈물 2」, 『그들은 왜 갔을까』, 계간문예, 2009, 97쪽 참조.) 2007년에 문화예술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이정호 구술채록문』(박선애 대담)에 작가의 생애, 작품 활동이 소상히 밝혀져 있다.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16706

37 이병순의 「이정호 소설 연구」는 '실향민 의식을 통한 6.25 전쟁의 서사화'라는 점에서 이정호 문학세계의 전모를 밝힌 거의 유일한 연구다. 이병순의 연구는 한국문학사에서 잊힌 여성작가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작가의 문학 세계를 개괄하는데 그쳐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병순, 「이정호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617-643쪽.

38 이정호, 「어머니의 눈물 2」, 『그들은 왜 갔을까』, 계간문예, 2009, 97쪽.

없었다. 이정호의 문학은 전쟁을 직접 겪은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지역의 전시 상황을 상세하고도 풍부하게 재현하고 있어 6.25 전쟁에 대한 사료적 가치마저 갖는다. 이 글에서는 이정호가 전쟁을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사고하며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삶에 가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이자 성폭력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겠다. 이정호 문학은 휴먼드라마로 미화되어 온 '흥남철수'에 대한 전복적 서사화를 통해 전쟁의 폭압성과 군사주의·성차별주의에 노출된 여성의 수난을 교차시킴으로써 전쟁을 여성중심적으로 조망한 희귀한 사례다.

이정호의 많은 작품들은 전쟁과 남성성에 대한 젠더 연구라고 할만큼 감상적이거나 소심하기조차 했던 남성들이 전쟁에 휩싸이면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전쟁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잃어버리고 권력과 자신을 일체화해 자율적, 자각적 개인으로 사유하지 못하거나, 폭력성, 공격성, 파괴성 같은 원초적 욕망에[39] 지배당하는 '나약한' 남성성들을 통해 남성중심의 영웅적 전쟁 신화를 전복한 것이다. 「잃어버린 동화」(1963)는 전쟁이 인간을 복종 기계로 만드는 전체주의적 폭력임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이자 C고등학교 민청위원장인 재식은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최대한 모집하라는 상급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체 검사에서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징집을 시도한다. 자신에게 할당된 일정 수의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면 군당 상임위원회에서 자아 비판을 당할 것이 뻔하지만,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고 국군과 연합군에 밀리면서 이미 여러 번 징집이 이루어져 병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애꾸, 언청이, 아니면 폐병 삼 기쯤 돼보이는 뇌리끼리한 빈약한 체

39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이 문명의 이름으로 숨기고 있는 폭력성, 공격성, 파괴성을 드러냄으로써 사랑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예수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만 그 명령은 불가능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주문이다. 인간에게는 사랑의 감정 못지 않게 미워하고 파괴하고 고통을 가하려는 본능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문명은 이성적 본능에 대한 억압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야수성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본능적 미움은 이성적 판단보다 강하기 때문에 문명의 그런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섣불리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 공격 본능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하고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123쪽.

구의 사나이들"[40]이 병사로서의 효용이 없어 죽을 게 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참전을 압박하다. 그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일말의 수치심을 느끼지만 "우리들의 책임감이나 충성 같은 것도 숫자적으로 계량"(77)되는 현실에 문제를 돌림으로써 자아에 대한 성찰을 회피한다. 전쟁과 냉전체제가 공감 능력을 억누르고 무사유와 무성찰성을 유도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정호는 6.25 전쟁을 원초적인 공격욕, 파괴욕에 사로잡혀 과잉 폭력을 저지르는 남성의 사이코 드라마로 그려내기도 했다. 병사가 전쟁기계로 거듭나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전체주의 문화의 영향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다. 냉전체제는 폭력을 격려·고취함으로써 정상 사회가 엄격하게 금하는 타자에 대한 폭력을 허용한다. "타인에게 폭력을 사용하려는 근본적 의지는 개별 전쟁 행위가 의존하는 바로 그 기반"[41]이라는 비판처럼 전쟁은 힘에 대한 숭배와 공격적 충동 그리고 그것의 과도한 표출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전쟁은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성을 숭배하고 전투적 역량을 가치화한다. 전쟁의 수사학들은 힘을 예찬함으로써 폭력적인 남성성을 자극하고 남성들 간의 대결과 경쟁 역시 고조된다. 결국 전쟁 참여자는 자신의 원초적 공격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폭력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인과(因果)」(1962), 「영원한 평행」(1962), 「잃어버린 동화」(1963), 「두아들」(1964) 등 여러 작품에서 전쟁은 죽마고우(竹馬故友)나 배다른 형/아우가 이념을 위장막처럼 내세워 서로를 향한 질투/시기의 감정/정동을 표출하고 충족하는 감정극으로 그려진다. 이념을 넘어선 민족애나 휴머니즘을 강조하기 위해 전쟁에 관한 서사는 자주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나 친구 간의 갈등으로 비유되어 왔다. 그러나 이정호는 '형제전의 플롯'을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과 냉전체제가 남성들 간의 힘겨루기 게임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차용해 온다.

1960년대 남한의 반공 사회에서 월남민은 사상 증명을 요구받는 처지였지만 이정호는 대한청년단 소속의 우익 청년이 저지르는 과잉의 폭력을 다루기도

40 이정호, 「잃어버린 동화」, 『이정호문학전집1: 잔양』, 계간문예, 2009, 77쪽.

41 베티 리어든, 앞의 책, 96쪽.

했다. 「영원한 평행」(1962)은 피란민을 싣고 흥남을 떠나는 배 위에서 “XX단 감찰부장이자 H도 정치보위부 간부”인 박융구가 북에서 보냈던 두 달의 시간을 회상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융구는 “빨갱이라면 씨알머리도 없이 쳐부수고 말겠다고 주먹을 휘두르며 포효”[42]했던 지난 날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에 휩싸인다. 공산당이 소년들마저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에 분노해 전쟁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실상 자신이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 왔다는 자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H도에서 그를 사로잡았던 것은 자신의 친구이기도 했던 인민군 박기수에 대한 적의였다. 융구는 기수가 국군 치안대를 피습해 피해를 입히자 전력을 다해 그를 쫓고 생포해 결국 사형장으로 보낸다.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지만 융구는 총상을 입고도 사형장에서 살아나온 기수를 다시 처단한다. 이렇듯 융구가 기수를 증오하는 것은, 학창시절에 기수가 일인 교사에게 함께 저항하자는 약속을 깨버린 데 대한 원망의 마음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오주은이 박기수의 애인이었기 때문이다. 융구는 여전히 주은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박기수를 선망하고 시기했던 것이다.

이렇듯 권력에 맹종하거나 원초적 공격욕에 지배 당하는 남성들과 달리 이정호 소설 속 여성들은 비판적 지성을 가진 자유인이자, 인간을 타자화·대상화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다움의 소유자로 그려진다. 주은은 융구가 폭력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나 전쟁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인물이다. 융구는 주은이 ‘XX단’ 부녀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자 사상의 건전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면서 동란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입당을 권유한다. 그러나 주은은 본질적으로 “전쟁은 비참”한 것이며 “거기서 받은 상처를 슬퍼해야 하잖아요?”(18)라고 답변함으로써 전쟁을 감싸고 있는 상투어들을 뚫고 전쟁이 본질적으로 낭비이고 폭력이라는 점을 직시하라고 암시한다. 주은은 갈등과 적대를 넘어 화해와 관용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이기도 한다.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겨질 아이를 연민해 박기수가 융구에게 잡히지 않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를 돕기 때문이다. 주은이 피아노로 ‘소녀의 기도’를 연주하는 모습은 여성이 전쟁과 냉전체제

42 이정호, 「영원한 평행」, 『이정호문학전집1: 잔양』, 계간문예, 2009, 10쪽.

를 넘어설 수 있는 평화의 주체라는 작가의 생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개의 소설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여성들은 전쟁을 비판하는 주체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전쟁으로부터 고통받는다. 홍남철수를 서사화한 작품인 「인과(因果)」(1962)에서 여주인공 성아는 남한으로 피란을 가기 원하지만, 고집스럽다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도 피란의 패스포트와도 같은 "○○○○단 입단원서"[43] 작성을 거부한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사회라면 되도록 혼자 있고 싶"(159-160)다는 성아의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강요된 체제 순응보다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 같은 시민적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먼저 피란부터 떠나야 하는 성아는, 이북을 떠나기 위해 국군인 진호의 힘에 의존한다. 성아는 국군 진호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굴욕을 대가로 지불하고 남한을 향하는 LST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월남한 이후에도 성아는 6.25 전쟁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성아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어 상이군인이 된 남편의 전쟁 전리품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6.25 전쟁과 냉전체제에 대한 이정호의 비판은 '흥남철수'에 대한 재현을 통해 고조된다. '흥남철수'는 장진호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12월 원산이 공산당에게 점령당해 퇴로가 차단되어 흥남 해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자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흥남 주변에 몰려든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선박으로 탈주시킨 사건으로,[44] 보수 언론에 의해 "크리스마스의 기적"[45]에 빗대어질 만큼 성공한 군사작전으로 평가받아왔다.[46] 이

43 이정호, 「인과」, 『이정호문학전집2: 마그마』, 계간문예, 2009, 158쪽.

44 대규모적인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상당한 전투력을 보존해 다음 단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흥남철수'는 그간 성공한 전투로 평가되어 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흥남철수' 항목을 참고할 것.

45 조선매거진,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작전」, 『월간조선』 제453호, 2017, 360-371쪽.

46 흥남철수는 공산당의 학정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 낸 기적적 사건으로 재현되곤 한다. 그러나 당시 LST 한 척에는 정원의 10배가 넘는 5천여 명이 승선하였음에도 30만의 인파 중 마지막까지 배를 탄 피란민은 9만 1천여 명이었다는 기록은 월남을 원하는 이들 중 다수가 배에 타지 못해 북한에 남아야 했음을 뜻한다. 탑승 인원이 한정된 배에 승선하는 과

사건의 극적인 서사상에 주목한 김동리는 약 3년을 공들여 『흥남철수』(1955)를 완성했다. 김동리는 '흥남철수'를 민족적 이산이 시작된 비극적 사건으로 재현하면서도, "월남을 결행하는 피란민을 자유 국민의 이미지로 균질화"하고 "남한 땅을 자유의 종착지, 소망을 성취하는 공간으로 이상화"[47]함으로써 전쟁의 기만을 봉합했다. 그러나 문단의 신진 여성작가였던 이정호는 ''흥남철수'=국군과 유엔군의 영웅적 승리의 서사'로 보는 시선에 균열을 내는 불온한 증언자를 자처했다.

> "(전략) 길가에 군데군데 서 있는 트럭 위에서 완장을 낀 기관원인 듯한 남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쪽지를 보아가며 승차시키고 있었다. 행정기관, 치안대, 군인가족, 학도호국단, 대한 청년단, YMCA……수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제각기 트럭으로 집단적인 피란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하지 않는 자유 시민은 도보로라도 피란가기 위하여 눈보라치는 도로 연변에 장사진을 쳤다. 성아도 그 장사진에 끼었다.
>
> 영대교(營垈僑)에 이르렀을 때였다. 다리 어귀에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 아우성이었다. 군 당국에서 다리를 차단하고 도교시켜 주지 않았던 것이다.
>
> "이 새끼야! 길을 열어러!"
>
> "이 죽일 놈아! 얼어 죽는다아. 길을 비켜라……!"
>
> (중략)
>
> 총을 휘두르며 제지하고 있는 유엔 MP 앞에 어떤 중년 남자가 가서 손짓발짓으로 교섭을 시작했다. 무질서한 시민의 이동은 군 후퇴 작전상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중 속에 적색분자가 전혀 섞이지

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산의 비극을 초래한 실패한 작전이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다. 무엇보다 국군과 유엔군이 좌익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피란을 가지 못하도록 도로를 차단했다는 사실은 전쟁과 냉전 권력의 비인간성을 보여준다.

47 유임하, 「전쟁 속 휴머니즘과 '국가'의 시선-「흥남철수」의 정치적 독해」, 『한국문학연구』 제34호, 한국문학연구소, 2008.6, 450쪽 참조.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173-174)

위 인용문은 흥남에서 남한으로 출발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눈보라를 뚫고서라도 영대교를 지나려는 시민들과 이들의 통행을 제지하며 시민들에게 사상의 증명을 요구하는 국군·유엔군 헌병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 직전의 긴장어린 순간을 담고 있다. 성아는 유엔군이 함흥시에서 본격적으로 후퇴를 시작하자 륙색을 걸머지고 흥남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러나 흥남으로 향하는 길은 국군과 유엔군 헌병에 의해 차단되어 있다.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 치안대, 군인가족, 학도호국단, 대한 청년단, YMCA" 등 힘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우익 단체가 발행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이다. 반면에 소속도 없고 증명서도 없는 사람들은 "군중 속에 적색분자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질서한 시민의 도교를 엄금"(174)한다는 이유로 피란을 갈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군은 다른 길로 가라고 명하지만 너무 멀리 길을 돌아가야 하는 데다가 함흥과 연결된 다리가 이미 차단되어 있을 게 뻔해 사실상 피란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렇듯 군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시민들은 함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진입을 금하는 제방을 향해 달리지만, 다리 어귀의 초소에서는 제방을 넘어오는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한다. 눈보라의 추위 속에서 무력한 노인과 아이를 업은 여자 등 옹색한 시민들이 뒤엉켜 달리고, 뒹굴고, 쓰러지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작가는 전쟁과 냉전 권력의 비인간성을 고발했다.

이정호는 '흥남철수'를 휴머니즘의 드라마가 아니라 개인의 생사여탈권을 거머쥔 냉전 권력의 폭압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재해석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피란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우지 않고 "○○○○단 입단원서" 같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가진 이들에 한정해 도교를 허락함으로써 사실상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존엄한 인간과 벌거벗은 생명으로 시민을 구별지웠다. 주인공 성아는 좌익 사상을 추구한다기보다 사상의 자유를 가진 개인이고 싶어 우익 성향의 정치 단체 가입을 거부했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하고 싶어도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상증명서를 발행받을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을 무시하고 자격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의 도로 통행을 막아 사실상 피란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쟁과 냉전 권력의 비인간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냉전 권력은 사상의 건전함이라는 지극히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사실상 시민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했다. '홍남철수'는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생명 가치에 등급을 매겼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냉전의 정치공학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배타적 편가르기와 위계화로서 전쟁의 폭력성은,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여성들에게 트라우마적 상처를 입히는 젠더 폭력의 양상을 띤다. "여자의 신체는 깃발을 내걸고 행진하는 승리의 은유"라는[48] 말처럼 전시에는 전투의 차원에서 성폭력이 빈번하게 자행된다. 성폭력은 병사가 적군 남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입히고 자신들의 우월성과 지배를 적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전투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적군의 여성 강간은 전쟁이 성차별주의의 한 양상임을 뜻한다. 그러나 적군에게 강간당한 여성의 이야기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기보다 자국의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군사주의와 냉전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화되어 왔다. 사실상 전시 하에서는 이데올로기나 민족 등 동질적 집단 속에서도 남성에 의한 여성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전쟁과 냉전체제가 성차별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사유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앞서 성아의 경우에서 보았던 바처럼 남성들이 병사가 되어 여성들은 갖지 못하는 권력를 획득하게 될 때,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성 병사나 냉전 권력의 상층부에 속한 남자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쟁은 여성이 강간 위험에 노출되고 전쟁의 위안부로 상품화되는 성차별주의인 것이다.

「잔양(殘陽)」은 1960년대 초반 박정희 혁명 정부가 사회의 개조와 쇄신이라는 미명 하에 일터마저 감시하는 시대 현실을 비판하며 양심을 가진 개인을 진정한 인간의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4.19 혁명 이후의 문학적 흐름에 대한 이정호의 관심과 연대감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여성작가로서 이정호는 체제에 대한 불복종 같은 거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기보다 일상 속에 성차별주의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유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다. 대학병

48 와카쿠와 미도리, 김원식 역, 『전쟁과 젠더: 사람은 왜 전쟁을 하는가』, 알마, 2005, 201쪽.

원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의사들이 유흥의 차원에서 동료 여직원, 여성 환자, 자신의 아내들에 대한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권력에는 맹종하지만 일상에서는 성폭력을 자행하는 남성들의 이중성을 꼬집은 것이다. 남성들의 이와 같은 허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전쟁과 여성 강간이다. 이정호는 성차별주의로서의 전쟁과 그것의 공모자인 남성들을 비판하고 이들에게 양심과 윤리를 촉구하기 위해 '검은 코트를 입은 소녀'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다. 이정호 문학에서 여성은 폭력의 사회와 그 공모자들이 숨긴 죄를 환기시키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양심을 가진 개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구원의 천사, 즉 타자의 얼굴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내과의사 '강'은 동료들에게 조롱조차 받을 만큼 퇴폐적 생활과는 거리가 먼 모범생이다. 그러나 정작 '강'은 "스스로 질서나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일까.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추종하고 있는 것일까"[49]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 자신을 따라붙는 검은 코트를 입은 소녀 '윤'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6.25 전쟁기에 자원 입대해 함흥에서 사령관의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강은 '흥남철수'가 결정되어 후퇴가 이루어지던 겨울 밤, 우연히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소녀 '윤'을 만난다. '강'은 소녀를 향한 솟구치는 욕정으로 군인 신분을 이용해 다리를 지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소녀와 약속한 밤에 "순간의 향락을 위해서 군기를 어길 수는 없"(369)다는 생각으로 '윤'의 간곡한 부탁을 저버린다. 그러자 다리만 건널 수 있다면 옷을 벗겠다고 말할 만큼 절박한 소녀는 군인인 '엄'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대가로 다리를 건넌다. 휴전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강'은 이제는 대령이 된 '엄'의 손에 이끌려 F부대 XX클럽에서 미군과 한국군 장교 앞에서 벌거벗은 채 춤추는 '윤'과 다시 재회한다. '강'은 웃음을 잃고 마치 외설기계처럼 선정적인 춤을 추는 '윤'을 보며 자신이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전쟁 가해자임을 깨닫는다. 군인이라는 규율에 갇혀 사실상 '윤'에 대한 공감을 거부하고 그녀가 '엄'의 성적 쾌락을 위한 제물이 되도록 방조했음을 자각한 것이다. '강'은 자신이 양심적 시민이 아니라 순응을 체질화한 권력의 공모자임을

49 이정호, 「잔양」, 『이정호문학전집1: 잔양』, 계간문예, 2009, 364쪽.

비로소 어렴풋이 깨닫는다.

이정호는 전쟁을 전쟁터의 병사가 "난폭한 야수가 되어 용솟음치는 욕정"(363), 즉 여성을 향한 성적 약탈과 폭력이 자행되는 사육제로 재현한다. "남성=전사=보호자, 여성=피보호자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성별화된 군사주의"[50]는 가부장적 냉전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논리이다. 앞서 말한 바처럼 전쟁 담론은 남성을 국가 방위의 주체로 내세우며 여성의 신체적 취약함을 강조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남성이라는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전투를 장려하고 군사주의적 남성성을 예찬한다. 그러나 "전쟁과 군인과 여자—. 점령지구란 남자가 횡포를 부리기에 꼭 알맞은 분위기"(363), "여자를 자의로 요리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중략) 누구나 동하는 본능이 아닌가"(368)라는 각각 '엄'과 '강'의 발화가 말해주듯이 전쟁과 냉전체제는 여성에게 성적 종속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남성중심적인 폭력이다. 비록 전투가 멈추고 포성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여성은 성차별주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휴전이 되었지만 미군 부대의 클럽에서 무희로 살아가는 '윤'의 위치는 전쟁은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착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가는 유흥 산업과 성매매를 매춘 외교의 한 양상으로 포착함으로써 군사주의의 성차별주의를 비판한다. "가난한 한국을 도우러 온 그들의 환락"(365)이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XX클럽은 한국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으로 주한미군의 "휴식과 오락"을 위한 공간이다. '미8군'으로 짐작되는 이 공간은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다른 아시아 지역들처럼 한국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예산업이 크게 부흥하면서 여성의 성상품화 현상이 가속화된 역사적 흐름을 보여준다.[51] 문제적인 것은 이 오락적·성적 위안이 외교의 이름으로 한국 정부에 의해 기획되어, 한국 여성을 제국주의의 성 상품으로

50 김엘리, 「한국의 군사주의와 성: 유교전통, 반공주의, 경제발전주의를 중심으로」, 『여성과 평화』 제2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2, 135쪽.

51 김대현에 따르면 "1953년 7월 6.25 전쟁이 휴전을 맞은 후 미군이 한국에 잔류하고, 1955년 7월 26일 미 육군 제 8군 사령부가 일본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예산업이 크게 부흥했다." 김대현, 「워커힐의 '디바'에게 무대란 어떤 곳이었을까: 1960~70년대 유흥업과 냉전시대의 성문화」, 『원본 없는 판타지』, 오혜진 기획, 후마니타스, 2020, 142쪽 참조.

위치짓는다는 것이다. 엄대령이 '강'을 찾아온 것은 '윤'이 폐결핵에 걸렸지만 지속적으로 무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병이 없다는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윤'을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국제 외교를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한 것이다. '강'은 병든 '윤'을 보며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엄대령의 부탁을 거부하고 '윤'을 살려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이정호는 전쟁과 분단의 폭력에 노출된 실향민 작가로서 그간 한국문학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6.25 전쟁기 이북 지역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양상을 기억하고 증언했다. 불온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월남민이었지만, 흥남철수 작전을 국군과 유엔군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대탈출의 휴머니즘 드라마가 아니라 사상의 건전성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공 이념을 시민의 생사여탈권을 결정하는 냉전 권력이 탄생한 기원적 장면으로 소환했다는 점은, 이정호가 분단극복을 위한 한국문학사에서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작가임을 의미한다. 편가르기와 위계화, 즉 차별에 뿌리박은 냉전체제는 여성과 소수자 보호라는 수사학을 내세우지만 실상 여성은 전쟁기에 안전하지 못하고, 남녀 관계는 지배/복종의 폭력적 양상을 띤다는 점에 주목한 이정호의 문학은 전쟁에 대한 여성주의적 기억과 해석 작업이라는 점에서 여성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정호는 전시 여성 성폭력을 통해 전쟁의 성별은 결코 무성(無性)이 아니며 전쟁체제와 성차별주의는 동일한 것임을 비판했다. 병사로 호명됨으로써 냉전 권력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권력에 도취되어 자율적, 자각적 개인이기를 포기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고발함으로써 보상이나 위로조차 받을 수 없었던 전쟁의 여성 희생자들을 애도했던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1945년 해방은 여성들에게 제국주의와 봉건적 가부장제라는 이중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몰락과 함께 함성처럼 일어난 여성해방의 물결은 해방기의 이념적 쟁론 속에서 억눌리고 굴절되었고, 6.25 전쟁이 일어나 미소를 중심으로 한 진영/체제 대결이 격화되고 한

반도가 세계가 냉전체제로 재편되는 냉전 형성 전쟁의 한복판이 되면서 여성해방을 향한 기획은 저지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과 냉전체제 속에서 국가는 반공주의 이념과 군사주의적인 동원문화를 바탕으로 남성을 조국 근대화의 수호자로 명명하는 한편으로, 여성을 가정영역에 고립시키고 모성성을 이상화함으로써 성별을 분리하고 위계화했다. 냉전체제는 나라를 지키는 남성과 남성의 보호를 받는 여성이라는 구도를 생산해 냄으로써 은밀히 성차별주의를 지지하게 하고, "군사적 가치와 정책이 안전하고 질서잡힌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신념 체계인 군사주의"[52]에 동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부장제를 온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월남 여성작가는 해방과 6.25 전쟁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기를 통과해 온 여성 개인이자,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당사자로서 자유의 수사를 동원해 전쟁을 고결한 희생으로 각색하고 폭력을 옹호해온 냉전 권력에 맞섰던 글쓰기 주체였다. 전쟁은 해방과 함께 자유와 성장을 위한 도정에 나섰던 여성이 전쟁을 겪으며 가부장적 냉전 권력에 갇히는 결절점이었다. 박순녀는 단순히 6.25 전쟁기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을 넘어서 체제, 이념, 젠더의 경계를 흩뜨리면서 분단과 가부장제에 갇히지 않는 글쓰기의 여성적 지평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정호는 이북에서의 6.25 전쟁 경험을 토대로 '흥남철수'를 휴머니즘의 전쟁 드라마가 아니라 이념을 근거로 시민을 고귀한 생명과 인간적 존엄성을 갖지 못한 벌거벗은 생명(zoe)으로 분리해 내는 생명권력(bio-pouvoir)이 자행한 거대한 폭력으로 재현했다. 지금까지 한번도 이야기되지 않았던 국군의 여성 민간인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미군부대 내 유흥산업을 통해 전쟁이 남성적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 여성과 소수자를 제물로 삼는 폭력임을 비판했다. 이렇듯 월남 여성작가들은 냉전의 신화적 기억에 균열을 내는 증언과 기억을 통해 가정 영역에 갇힌 채 가부장제가 규율화하는 성녀/마녀의 이분법과 싸우는 여성작가들의 감정/정동적 글쓰기와 다른 차원을 보여줌으로써 게토화되었던 여성문학 장에도 균열을 가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52 베티 리어든, 앞의 책, 47쪽 참조.

기본 자료

박순녀, 「잘못 온 청년」, 『어떤 파리』, 정음사, 1972.

_____, 「대한민국의 거지」, 『칠법전서』, 일지사, 1976.

_____, 「아이 러브 유」, 「외인촌 입구」, 「엘리제 초」, 「어떤 파리」, 『박순녀 작품집』, 최강민 편, 지만지, 2010.

_____, 「기쁜 우리 젊은 날」, 『기쁜 우리 젊은 날』, 지혜네, 1998.

_____, 「멀리있는 이유」, 『이중섭을 찾아서』, 동서문화사, 2014.

박완서, 「엄마의 말뚝(2)」,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9, 67쪽.

이정호, 「마그마」, 『마그마』, 문조사, 1972.

_____, 「잔양」, 「영원한 평행」, 『이정호문학전집1: 잔양』, 계간문예, 2009, 18쪽.

_____, 「어머니의 눈물 2」, 『그들은 왜 갔을까』, 계간문예, 2009, 97쪽.

단행본

고규진, 『정전의 해부』, 전북대학교 출판부, 2016, 134-135쪽.

김대현, 「워커힐의 '디바'에게 무대란 어떤 곳이었을까: 1960~70년대 유흥업과 냉전시대의 성문화」, 『원본 없는 판타지』, 오혜진 기획, 후마니타스, 2020, 142쪽.

김양선, 「6.25 전쟁기 여성문학 장의 형성」,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154-181쪽.

박완서, 「추한 나이테가 싫다」, 『꼴지에게 박완서보내는 갈채』, 평민사, 1977, 60쪽.

베티 리어든, 황미요조 역,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나무연필, 2020, 47쪽.

_____, 강순원 역, 『포괄적 평화교육』, 살림터, 2021, 48쪽.

와카쿠와 미도리, 김원식 역, 『전쟁과 젠더: 사람은 왜 전쟁을 하는가』, 알마, 2005, 201쪽.

이다 유코, 김효순 역, 『일본 근현대 여성문학 선집 18-이다 유코』, 어문학사,

2019.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123쪽.
캐서린 H. S. 문, 이정주 역,『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20쪽.

논문
김귀옥,「아래로부터의 반공 이데올로기 허물기」,『경제와 사회』 제43호, 비판사회학회, 1999, 236쪽.
김미덕,「주한미군 기지 정치(Base Politics) 연구에 대한 검토」,『아태연구』 제21권 제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4, 113-117쪽.
김엘리,「한국의 군사주의와 성: 유교전통, 반공주의, 경제발전주의를 중심으로」,『여성과평화』 제2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2, 135쪽.
김은하,「해방세대 여성의 이동과 탈주-박순녀의 소설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 제32호, 인천대인문학연구소, 2019, 149-173쪽.
_____,「비판적 여성 지성의 형성과 성장」,『후마니타스 포럼』 제6권 1호,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2020, 173-200쪽.
_____,「한국 여성문학의 형성과 성장-해방과 전쟁을 중심으로」,『개념과 소통』 제26호, 한림과학원, 2020, 58쪽.
김주리,「월남 여성작가 박순녀의 소설 속 배회하는 여성의 표상」,『어문론총』 제8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81-210쪽.
서세림,「월남문학의 유형-'경계인'의 몇 가지 가능성」,『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7쪽.
서은주,「비판적 지성과 젠더, 그 재현의 문제: 박순녀의 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65-99쪽.
이명희,「반공주의와 작가정신: 월남작가 박순녀의 경우」,『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8, 7-38쪽.
이병순,「이정호 소설 연구」,『현대소설연구』 제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617-643쪽.
유임하,「전쟁 속 휴머니즘과 '국가'의 시선-「흥남철수」의 정치적 독해」,『한국문학연구』 제34호, 한국문학연구소, 2008.6, 450쪽.

전소영, 「해방 이후 '월남작가'의 존재 방식 1945~1953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4호,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14, 383-420쪽.
정미지, 「박순녀 문학의 젠더 주체와 '불온'의 재현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3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27-255쪽.
조선매거진,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작전」, 『월간 조선』 453호, 2017.12, 360-371쪽.
조은, 「냉전문화 속 여성의 침묵과 기억의 정치화」, 『여성과 평화』 제3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3, 74쪽.

기타

박순녀(구술)·박선애(대담자), 『박순녀 구술채록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5656
박순녀, 「케이스워커」, 『조선일보』, 1960.1.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178119600209e1047&set_date=19600209&page_no=4
이정호(구술)·박선애(대담자), 『이정호 구술채록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16706

Abstract

The Writings of Refugee Women Who Defied the Cold War System
: An Analysis of Park Soon Nyeo and Lee Jung Ho

Kim Eun-ha

Refugee women writers Park Soon-nyeo and Lee Jung-ho were new voices in the literary world in the 1960s; however, they have remained as minor writers in Korean literary history. Since the 1990s, literary historians has begun have been to attempting to break down divisions the North-South division in literary history. Yet, refugee women writers have not been accepted as subjects whose capable of can criticizing and dismantling this system of division. The existence of refugee women writers is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that

Korean women's literary history should be an alternative literary history that transcends the limits of domestic literary history and is not simply one of many literary histories of "others." Refugee women writers have experienced war and therefore possess an ethical consciousness that allows them to fight back against the authoritarian state, which seeks to justify war as a "holy war" for peace while seeking to uphold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militarize society. Because the militaristic culture that supports the Cold War system threatens women's rights and peace, the narratives of the memories of women who question these absurdities of war are important. Criticism of the Cold War is essential for the liberation of women who are isolated in the family due to the oppression of their human rights in growth-oriented, post-war society and the strong post-war ideological division.

Key Words: Refugee writer, female writer, women's literature, 1960s, Cold War ideology, division, militarism, Korean War, Heungnam withdrawal, etc.

본 논문은 2022년 3월 23일에 접수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